

# 코오롱, 관절염치료제 상용화 코앞

## 코오롱생명과학, 전기 2상시험 시행 ... 바이오의약의 침범 역할 기대

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퇴행성관절염 치료 후보물질 <티슈진-C>가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<티슈진-C>는 전기 2상시험으로도 알려진 임상 2a상시험을 통해 1상시험보다 철저한 환자 모집기준을 거쳐 선정된 환자를 대상으로 의약품의 효과를 시험하게 된다.

코오롱그룹은 10여년 넘게 <티슈진-C> 연구개발에 매진하며 투자해왔으며 앞으로 1200억달러 규모의 퇴행성관절염 치료제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.

<티슈진-C>는 보건복지가족부(구 보건복지부)의 신약개발 지원사업으로 꼽혀 2002-06년 동안 연구비를 지원받았으며, 지식경제부의 신약개발 지원사업인 <바이오 스타> 과제로도 선정됐다.

동종 연골세포(Allogenic chondrocyte)의 재생을 돕는 TGF- $\beta$ 1 유전자를 삽입해 만든 제품으로 손상된 연골 조직의 복구가 가능하며, 주사기를 사용해 무릎에 간단히 주입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.

<티슈진-C>에 대한 임상 1상시험을 2008년 끝마쳤으며, 미국에서는 현지법인인 TissueGene을 통해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.

임상시험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면, 2012년 경에는 본격적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  
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9/02/23>